

세계 최초 친환경 철강소재 '에코틸' 개발 순천 해원MSC

소음차단·단열·가공성 탁월 건축·선박용 마감재로 각광

순천지역 중견 철강업체인 해원MSC가 세계 최초로 친환경 철강소재인 '에코틸(EcoSteel)'을 개발, 국내외 고부가가치 철강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서 열린 '20회 mbc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해원MSC부스에 기업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고 있는 '제 20회 mbc 건축박람회'에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기업관계자들이 구름처럼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에코틸은 해원이 1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미국MSC의 기술력이 결합돼 이뤄낸 결실로, 세계 우수 철강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분야에서 지역기업이 획기적인 신소재를 출시해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에코틸(EcoSteel)은 Environment + Economy + Steel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점탄성수지 및 철과 비철금속을 접합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해 소음차단, 단열, 가공성, 원가절감 효과가 뛰어난 뿐만 아니라, 수려한 미관과 항균효과까지 갖추고 있다.

에코틸은 가공성이 뛰어나 건축용 마감재에서부터 자동차, 선박,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일반 동(銅)제품에 비해 60~70%, 스테인리스 제품에 비해 30% 저렴해 가격경쟁력도 뛰어나다.

해원은 지난 5월 에코틸 신규라인을 순천공장에 구축하고, 제품

銅·스테인리스보다 저렴
고부가 철강시장 새 강자
"2010년 매출 7천억 달성"

확대생산을 마친 상태다. 또 건축박람회 참가와 함께 전국에 영업망을 갖추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해식 해원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신소재 에코틸은 관련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제품"이라며 "올 하반기에 에코틸을 본격적으로 출시, 2010년 매출액 7천억원을 달성해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MSC에서 40년 근무하다가 해원MSC로 자리를 옮긴 밀러 기술담당사장은 "에코틸은 강력한 소음차단효과로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미국 MSC사의 'Quiet Steel'을 한단계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이미 검증받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적용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에코틸의 철강재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원MSC는 2003년 설립돼 지난해 85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올해 예상매출액은 1천700억원이다.

모기업인 해원에스티는 1996년 설립된데 이어 2004년 수출 2천만불, 2005년 3천만불탑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매출 2천200여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4인 가족기준 추석 차례비용 18만원... 작년보다 8.9% 올라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작년 추석보다 8.9% 오른 18만230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빨라진 탓에 햅쌀이 여의치 않아 과일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햅쌀과 특품 5개에 1만3천150원으로 작년 추석보다 29.0%, 햅쌀 역시 특품 5개에 1만6천200원으로 29.6% 오른 전망이다.

지인 상주와 영동지역의 냉해로 생선양이 감소, 시세가 상승하겠다고 농협유통은 전했다. 수산물엔 조업량 증가로 값이 내릴 것으로 점쳐졌다.

가과 미국산 쇠고기 유통에 대비한 조기출하로 산지가격은 5% 가량 하락하겠지만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최근 소비심리에 따른 수요증가로 시세는 크게 떨어지지 않겠다고 농협유통은 내다봤다.

상반기 LPG 판매가 43% 폭등

kg당 1천255.45원 ... 전년보다 377.33원 상승

올 상반기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유가 양동에 따른 LPG수입가격의 급등과 환율 상승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 LPG수입업체들의 평균 공급가격은 kg당 1천125.37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3% 올랐다. 전국 충전소에서 파는 LPG 평균

판매가격은 올 들어 kg당 1월 1천239.39원, 2월 1천240.69원 등이었다가 3월 1천209.43원, 4월 1천204.79원 등으로 하락했으나, 5월에 1천249.81원으로 오른 데 이어, 6월에 1천388.58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광양복합신기술 세미나
내일 광주과학기술원서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이기태)는 19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펜관에서 광산업관련 산학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08 광양복합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을 웨딩박람회' 광주시세계의 OK웨딩클럽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백화점 1층에서 '2008 가을 웨딩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람회는 상담고객들에게 웨딩사진 무료 촬영, 드레스와 텍시도 무료 대여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시세계 제공>

엘리베이터 전용 LED 조명 개발

한국광기술원 등 ... 광주 LED 제품 판로 확대 기여

엘리베이터 전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개발돼 광주 지역 LED 제품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광기술원에서 시연회를 통해 공개되는 'SUNLIGHT'는 기존 엘리베이터에 장착된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을 설계하고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광양제철 직원들 잇단 자력 기술개발

'기술의 포스코' 앞당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끊임없는 개선아이디어와 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자력 기술개발을 실현하며 '기술의 포스코'를 앞당기고 있다.

와 생산성 저하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개 부서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제어시스템과 프로세스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자력 개발에 성공, 공정시간을 30% 단축시켰다.

光銀, 조선타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 우선협상자 선정

조선타의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 우선협상자에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조선타가 지난달 14일 국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받아 내부 평가위원회 평가

이나 별도의 신분증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은행 측은 "조선타가 타 은행의 가격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광주은행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두 기관의 상생에 대한 결단으로 생각된다"며 "지역민들도 조선타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일중한의원' (Iljung Han's Clinic). The ad features a large title and several photos of medical staff. It lists various services such as '신체기능검사' (Body Function Test) and '신경진단' (Neurological Diagnosis). The clinic is located at 100-1, Gwangju-gu, Gwangju, and can be reached at 062) 676-1075.

Advertisement for '대리점 모집' (Franchise Recruitment) for a food processing company. The ad shows images of various food products and a large industrial machine. It highlights the company's '식품안전관리' (Food Safety Management) and '품질관리' (Quality Management) systems. The ad is for 'SM' brand products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potential franchisees.